
世界 主要 FTA 締結國의 農業 및 限界
産業 構造調整과 被害報償 政策 事例

2003. 11

K O T R A

통상전략팀

목 차

I . 調 査 概 要	1
II . 調 査 結 果 要 旨	2
1. 主要國의 FTA 締結 現況 / 2	
2. 各國의 FTA 締結에 따른 産業構造調整 政策方向 / 3	
3. 示唆點 / 9	
III . 各國의 細部 對處 事例	11

I. 調査 概要

□ 조사 목적 및 대상 국가

- 목 적 : 세계 주요 FTA 체결국의 농업 및 한계산업 구조 조정 및 피해 보상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FTA 체결 확대에 대비한 정책입안 참고 자료로 제공
- 조사 대상 : 11개국
 - 미주 지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 구주 지역 : EU, 폴란드, 체코, 헝가리
 - 아주 지역 : 일본

□ 주요 조사 내용

-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 각국 정부의 FTA 체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 농업부문 구조조정 정책 및 피해 보상 사례
 - 한계 산업(제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피해보상 사례

Ⅱ. 調査 結果 要旨

1. 主要國의 FTA 締結 現況

□ 2003. 5월 현재 총 153개 FTA 발효 중

- 지역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한 '9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 '90년대 이후 전체 FTA의 83%인 127개 발효
- 현재 WTO가맹국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FTA 체결
 - WTO 146개 회원국 중 미 발효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등 6개국에 불과

□ 지역 경제블록화 심화 추세

-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각국은 FTA 등 양자협상을 통해 실리 추구자세로 전환 경향
- 특히, 세계 2대 경제권인 미국, EU간 몸집불리기 경쟁 심화 추세
 - 2005년 미주 34개국을 포괄하는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출범 예정
 - 2004년 동구 10개국 EU 영입으로 EU 확대 예정
 - 15개국 → 25개국
 - MERCOSUR - EU FTA 2005년 출범 예정으로 추진중
 - 4개국 + 25개국

2. 各國의 FTA 締結에 따른 産業構造調整 政策方向

가. 농업 부문

1) 각국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및 시행 결과

□ FTA 대비, 특별 프로그램 실시 국가

- 미국, 멕시코, EU 가입을 앞둔 체코 등 동구권 국가에서 FTA 대비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 중
 - 미국은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FTA 체결로 한계화된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에게 기술을 지원하고, 현금 보조금 지급
 - 멕시코에서는 PROCAMPO라는 기금을 마련하여 농민들에게 헥타르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채산성이 좋은 품목으로의 전업 등 구조조정 유도
 - 그러나, 멕시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농민들에 대한 교육(신규 품종 재배농법, 의식 전환 등) 부족 및 정부 보조금 재원부족으로 실제 구조조정 실적 및 성과는 미미
 - 2003년 현재, 90% 이상의 농민이 여전히 전통 품종 재배, 9%만이 소득 증대 가능 품종으로 전환, 단 1%만이 업종 전환
 - EU 집행부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의 EU 가입을 앞두고 SAPARD(Support for Pre-Accession Measures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가입 예정 국가들의 산업 구조조정 지원

- 동 프로그램을 통해 EU는 2000-2006년까지 7년간 매년 5억 2천만 유로를 중동구 국가에 지원할 계획
- 한편, 체코는 체코 농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OZP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라는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및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일반적인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 정책 실시 국가

- EU, 칠레, 캐나다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별도의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단지 일반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시행
- 칠레는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과 영농 선진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 부여
- 특히, 캐나다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수습 차원보다는 생산성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Agricultural Policy Framework”를 통해 농산품의 생산성 제고, 마케팅 기술 지원, 품질 향상, 친소비자·친환경적 농업 개발 추구
- R&D 비용 및 설비투자의 세제 지원, 교육 기관 지원 등을 통해 Bio산업의 기술 개발지원 등 농업관련 Bio산업 육성
-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전자 조작 산업이 발전되고, 고부가가치 품종으로의 전환이 활발해져 농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됨

- 일본은 법인, 생산조직에 의한 기업영농 시스템 도입 확대로 영농 제도 및 농업 환경 정비

□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

-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는 FTA 체결에 대비한 구조 조정 정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브라질은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중 하나로 농업 구조 조정보다는 잉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
- 한편, 아르헨티나는 FTA대비 정책의 부재로 농·목축업계에 일부 피해가 발생

2)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 정책 및 사례

□ 보조금 지급 국가

- 미 농무부는 상기한 TAA 프로그램을 통해 한계 농·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현금 보조금 지급
- 멕시코 역시 '94년도부터 PROCAMPO라는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금 지급
- 단, PROCAMPO는 고질적인 영세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정책이기도 함

□ 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시기 유예

- 기본적으로 칠레는 FTA 협상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시기를 유예하거나,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대신하고 있음

- 단, 칠레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 견지

□ 사회 복지제도가 피해 보상 역할을 하는 국가

- 캐나다의 경우, 농업부문에 대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소득 보증 및 안정제도 시행을 통해 피해보상 대체
- 연간 지원액은 2001/2002 기준 C\$25억 규모

나. 한계산업(제조업) 부분

1) 각국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및 시행 결과

□ 별도의 구조조정정책 실시 국가 : 미국, 체코, 폴란드

○ 美 國 :

- 미 정부는 TAA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2년간 수입으로 매출액 및 고용 규모가 감소한 기업에게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부 컨설팅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있음
- 또한, 미 정부는 輸入 증가로 실직하거나 노동시간 및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구직, 전직 및 소득 지원

○ 체 코 :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70 만불 한도 내의 자본재 투자액 지원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대체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등을 실행 중

○ 폴란드

- EU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한계 산업인 석탄, 철강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 추진
- 석탄산업 부문에서는 채무 탕감, 고용인원 감축을 실시 중
이고, 철강산업 부문은 국영기업 민영화, 생산량 및 인원
감축 실시 중

□ 일반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실시 국가

- 캐나다, 일본, 칠레는 FTA 확대를 대비한 별도의 구조조정
정책 실시 대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하나, R&D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우수 인력 조달을 위한 대학 지원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섬유 의류 산업에 대해서는 CATIP (Canadian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섬유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저임금 FTA 체결국
대비 경쟁력 강화
- 캐나다는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저임금 FTA
체결국과의 직접적 경쟁을 극복
- 일본은 10여년에 걸친 장기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 엔젤제도 확충 등 벤처창업 육성
지원, 규제 완화 등 민간부문 신 기술산업 활성화 추진

※ 엔젤 제도 : 벤처기업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세제 우대조치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한 구조조정

- 멕시코는 '94년 NA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기반 강화 및 수출산업 육성에 전력
 - FTA 체결로 산업간 양분화 현상이 심화되어 수출 산업은 매년 12%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체 고용 인구의 80%가 종사하는 내수 산업은 연간 1%대의 저성장 기록

2)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 정책 및 사례

□ FTA 협상시 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시기 유예

- 기본적으로 칠레는 FTA 협상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시기를 유예하거나,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물적 피해 보상을 대신하고 있음
 - 일례로, 칠레는 제조업 보호를 위해 한국과의 FTA 체결 시 냉장고, 세탁기를 협상에서 제외하였고, 자동차 타이어를 12년 관세인하 유예 품목으로 설정
- 브라질 역시 한계 산업에 대해 관세 인하 유예기간 설정

□ 사회 복지제도가 피해 보상 역할을 하는 국가

- 캐나다에서는 FTA 체결과 관련해 특별한 피해보상 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실업보험, 의료보험 및 직업교육비 등 사회 안전망이 피해보상 역할

□ 반면, FTA 체결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의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한 국가도 존재

- 아르헨티나의 섬유 시장에는 무관세 혜택을 받는 MERCOSUR 역내 국가의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와 '94-2000년간 섬유 산업 생산 현장의 일자리가 무려 5만 3천개 감소
- 또한, 전자 제품 역시 MERCOSUR 역내국산 수입품의 국내 산품 대체 현상 심화로, 아르헨티나에 생산 혹은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 전자, 자동차 회사들이 현지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실정

3. 示唆點

□ FTA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

- WTO가 2005년말 경에는 300여개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만큼 FTA 확산은 빠르게 진행 중
 - 각국이 다자협상을 통해서는 자국의 민감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판단하는 추세로 확산 가속화
- 우리나라는 단 하나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어 전 세계적 FTA 추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및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지고, 일부 품목은 해외시장을 상실할 우려 대두

□ FTA 체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보상방식은 신중 필요

-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은 시급하나, 직접적인 현금보상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멕시코는 PROCAMPO라는 기금을 설치하고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재배품종 전환 유도 등 산업구조조정 효과는 거의 없다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정부가 느끼는 재정 부담에 비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
- 따라서, 임시 미봉책 성격의 현금 보상방식보다는 지속적인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

□ 신 기술개발 및 전업지원 등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요구됨

- 미국과 캐나다는 FTA체결로 피해가 유발된 한계 농업 및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기술개발 예산 지원
- 특히, 캐나다는 경쟁력 확보 노력의 결과로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왔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촉진되어 저임금 FTA 체결국산 제품과의 직접적 경쟁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표류 중인 칠레와의 FTA 체결 뿐 아니라, 향후 FTA 확대를 대비하여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을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 산업구조 조정 및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조치가 필요
-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협정체결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분야 제품 수입급증을 방관하고, 산업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결과, 의류 등 관련 분야 실업 증가와 MERCOSUR 역내국산에 의한 시장잠식 등 폐해가 큰 것으로 분석됨

Ⅲ. 各國의 細部 對處事例

1. 미 국

가. FTA 체결 현황

[미국의 FTA 체결 추진현황]

구분	체결 국가	비고 (체결/체결 예상시기)
기 체결	이스라엘	1985년 8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캐나다, 멕시코)	1994년 1월
	요르단	2001년 12월
	칠레	2002년 12월
	싱가포르	2002년 12월
협상 중	CAFTA(중미자유무역협정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연내 협상 완료 목표
	모로코	연내 협상 완료 목표
	호주	2004년 협상 완료 목표
	아프리카 5개국(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2004년 협상 완료 목표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 미주 34개국)	2005년 출범 목표
검토 중	도미니카 공화국	USTR, 대의회 협상 의향서 제출
	바레인	USTR 대의회 협상 의향서 제출

나. FTA 체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정책

1) 개 관

- 미 정부는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농업 등 한계산업 지원 추진
 - 근거 규정 : 1974년 무역법, 2002년 무역법에 의거 수정
 - 관할 부서 : 동 프로그램은 산업 및 분야에 따라 관할 부서가 다름
 - 농무부: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부문 구조조정 지원
 - 상무부: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 등 구조조정 지원
 - 노동부: FTA 체결로 인한 실업자 지원
- ※ 노동부의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산업정책이라기 보다는 복지정책이나, 전직지원 및 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므로 광의의 산업정책이라 할 수 있음

2) 농업 구조조정 정책

- 주무부서 :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시행 기간
 - 2002년 무역법에 의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
 - 동 기간 중 연간 9,000만불 이하의 금액을 농업분야 구조조정에 지출
- 주요 내용
 - 미 농무부는 FTA 체결로 인해 한계화된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에게 기술을 지원하고, 현금 보조금을 지급

- 수혜 자격

- 최근 연도 산물 가격이 이전 5년간 전국 평균 가격의 80%를 미달하는 농업 및 어업 종사자
- 단 FAS는 이 같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유사품목의 수입(import) 급증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 또한 농가는 농가 순소득이 감소했다는 점, 연평균 총 소득이 250만불 이하로 하락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함

○ 지원 내용

- 대체작물 개발, 마케팅 기법 전수, 현금 보조금 지급
- 단, 현금 보조금 지급 관련, 해당 농가는 1년 동안 1만불 이상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며, 보조금 수령 총액이 65,000불을 초과할 수 없음

3) 제조업 등 여타 산업

- 주무부서 : 상무부 경제개발청(EDA ;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 주요 내용 - 최근 2년간 수입으로 인해 매출액 및 고용

2. 멕시코

가. FTA 체결 현황

□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FTA 체결한 국가

- 3개 대륙의 32개국과 FTA 체결하여, 8억 7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의 접근이 용이한 국가임

[멕시코의 FTA 체결 추진]

구분	체결 국가	시기
기 체결	칠레	1992
	NAFTA(미국, 캐나다)	1994
	코스타리카	1995
	볼리비아	1995
	G-3(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1995
	니카라과	1998
	이스라엘	2000
	EU	2000
	North Triangle(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2001
	EFTA	2001
협상 중	FTAA	2005년 협상 완료 목표
	파나마	1997년 협상 개시
	일본	2004년 상반기 협상 타결, 하반기 국회 비준 목표
	우루과이	2002년 협상 개시
	아르헨티나	2002년 협상 개시 *궁극적으로 MERCOSUR와의 FTA체결이 목표
	MERCOSUR	2002년 협상 개시
검토 중	싱가포르	-
	한국	-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한국, 싱가포르를 차기 FTA 협상 대상국으로 검토 중

-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은 화학 등 민간부문의 반대로 난항중
- 한국과의 FTA 추진역시 국내 민간업계(화학, 철강, 섬유, 자동차 부품 등)의 강력한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

나.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1) 농업 부문

□ 농촌 빈민층 증가, 탈 농촌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

- 멕시코 농업부문 개방은 '86년 GATT 협상시 부터 시작되었는데, 멕시코 정부는 주로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보호
- '94년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농업에서 비중이 큰 시리얼, 콩, 오일, 커피, 설탕 등 농작물의 생산량이 수입산과의 가격경쟁 악화로 생산량 위축
- 2000년에는 기초 농산물 생산 업체 종사자 중 59%의 가구소득이 최저임금 이하를 기록하는 등 농촌 빈민층이 증가하고, 농민이 도시로 대거 이주 하는 등 농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 정부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

가) PROCAMPO

- 멕시코 정부는 농민에 대한 보조를 위해 '94년 PROCAMPO라는 기금을 마련, 보조금 지급

- 멕시코 정부는 농민들의 재배 품종을 채산성이 좋은 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농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농민들에게 헥타르 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구조조정 유도
- 멕시코 농업 종사자의 빈곤 등의 문제는 FTA 체결에 따른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구조적인 사회 문제인바, PROCAMPO는 전통적 농업부문 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도 함
- 지급 금액 : '97년 현재 각 농민의 실제 재배 면적, 1헥타르당 54불 정도임
- 지급 대상 : PROCAMPO 도입 첫해 1994년에는 옥수수, 콩, 쌀, 밀, 면화, 보리 재배 농민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재배품종, 업종전환에는 상관없이 일정 보조금을 헥타르에 따라 지급

나) 구조조정 결과

- 농림수산부의 PROCAMPO 도입 취지는 농민의 재배품종 전환 유도였으나 농민들에 대한 교육(신규품종 재배농법, 의식전환 등) 부족 및 정부 보조금액이 품종을 전환하기에는 부족하여 실제 농업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았음
- 2003년 현재까지 90% 이상의 농민들이 여전히 옥수수, 밀 등 전통 재배품종을 재배하고 있고, 9%만이 소득증대 가능 품종으로 전환하였으며, 단 1%만이 업종을 전환
- 참고로 멕시코 전통 재배품목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의 경우 NAFTA 체결이후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국내산보다 훨씬 저렴하여 국내산이 설자리를 잃고 있는 등 품종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를 지원할 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농민에 대한 보조를 위해 PROCAMPO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음

2) 한계산업(제조업) 부문

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초점

- 멕시코 정부는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94년 NAFTA 체결 이후, 수출 진흥을 위한 산업화를 목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나) 구조조정 결과

☐ FTA로 인한 효과로, 멕시코의 수출은 연평균 19%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95억불 이상을 유치

☐ FTA 체결로 산업간 양분화 현상이 두드러짐

- 국내생산의 35%를 차지하는 '수출산업'은 매년 12%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체생산의 65%를 차지하면서 전체고용의 80%인구가 종사하는 '내수산업'은 연간 1%대의 저성장을 기록하는 등 FTA로 인한 혜택이 일부에게만 집중되어 학계에서는 "NAFTA 이후 두 얼굴의 멕시코"라고 표현
-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보면, 자동차, 섬유, 봉제, 식품, 음료, 담배산업은 수출확대로 혜택을 본 산업인 반면, 신발, 목재산업은 피해를 입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 일본-멕시코간 FTA 추진관련 농업부문 합의사항

□ 양국간 여전히 의견 차이 노정

- 지난 8월 협상에서 일본정부가 당초 농산물 제외를 고집하던 종래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처음으로 멕시코 측에 농업부문 관세 인하안을 제시
 - 이때 일본 측은 쌀 등 곡물을 제외한 300개 품목의 관세인하안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측은 485개 품목에 대한 3단계(즉시철폐, 5년, 10년) 관세인하안을 제시하여 여전히 의견 차이를 노정
- 이후 지난 9월에 있었던 제10차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
 - 일본 협상단은 멕시코산 커피, 아보카도의 관세인하에 합의하였으며, 브로콜리, 호박, 양파 등 채소류 관세인하도 협상에 포함키로 하였음
 - 멕시코측은 일본의 쌀, 콩, 옥수수, 팥, 밀 제외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돼지고기, 설탕, 파인애플을 예외품목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특히, 멕시코 정부는 협상품목에서 돼지고기의 제외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임

3. 브라질

가. FTA 체결 현황

[브라질의 FTA 체결 추진]

구 분	체결 국가	시 기	비 고
기 체결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1991.3. · 1995.	· 불완전한 자유무역 지대로 출발 · 관세동맹 공식 출범
	멕시코 (특혜관세협정)	2002.7	792개 품목
	MERCOSUR-페루	2003.8	· 준 회원국 지위 부여
협상 중	MERCOSUR-안데안	2003.12	추진 중
	FTAA(미주 34개국)	2005	추진 중
	MERCOSUR-EU	2005	추진 중
	MERCOSUR-인도	-	추진 중
검토 중	MERCOSUR-중국	-	추진 예정

나.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1) 농업 부문

□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은 전무

- 브라질은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로, FTA 체결 및 WTO 등 다자간 협상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농산물 수출 확대

- 농업 구조조정보다는 잉여 농산물에 대한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

2) 한계 제조업 부문

☐ 한계 제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은 전무

- 브라질의 제조업 중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통신, 기계류, 화학 제품, 섬유류 등임

-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없음

다. 정부의 농업 및 한계 제조업 피해 보상정책 사례

1) 농 업

☐ 브라질의 농업 분야는 FTA 체결에 따른 최대 수혜 분야

- 따라서, 정부의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 보상 사례는 없음

2) 한계 제조업

☐ FTA 협상 시, 유예기간 설정

- 한계 제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 보호
- 일례로 브라질은 MERCOSUR 출범 시, 정보기기 및 자본재 등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는데, 정보기기는 2006년에 MERCOSUR의 대외 공동 관세를 적용할 예정

4. 아르헨티나

가. FTA 체결 현황

1) FTA 추진 정책 동향

□ 아르헨티나 정부는 다자간 지역무역협정 확대 적극 추진

- 기본적으로 MERCOSUR 통합 공고화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있지만, 안데스 공동체와의 통합을 통한 남미 FTA도 추진하는 등 남미 대륙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나아가 아르헨-멕시코 FTA나 메르코수르-EU FTA 등 북미 및 유럽 대륙에도 관심을 쏟고 있음

□ 특히, 2003년 5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FTA 확대 노력 가시화

- 아르헨티나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FTA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지 폐소화의 평가절하로 아르헨티나 수출상품들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된 것을 계기로, 수출 드라이브를 통한 경제재건 및 장기 발전 전략 모델로서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
- 또한, 브라질, 미국, 유럽과 같은 기존 주요 교역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FTA를 통한 수출대상국의 범위 확장을 꾀하고 있음
- 이전 정부들의 역외국과의 FTA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아직은 아시아국과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이 아르헨티나를 FOCALAE라는 중남미-아시아 경제협의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아르헨티나도 APEC에 참가하여 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추진하고 있는 칠레의 사례에서 자극을 받아, 동아시아(특히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아르헨티나가 동아시아 시장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 ① 경제성장 :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유럽, 미국 등 기존 시장에 비해 높음
- ② 식품 수요 : 천연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는 채료, 반가공 식품, 완전가공 식품 부문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음
- ③ 인구: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시장 규모도 크고 틈새시장 공략 가능성도 높음

[아르헨티나의 FTA 체결 추진 현황]

구분	체결 국가	시 기	비 고
기 체결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1991.3. · 1995.	· 불완전한 자유무역 지대로 출발 · 관세동맹 공식 출범
	MERCOSUR-칠레	1996	
	MERCOSUR-볼리비아	1997	
협상 중	MERCOSUR-ANCOM (안데스 공동체 5개국)	2003.12	추진 중
	FTAA(미주 34개국)	2005	추진 중
	MERCOSUR-EU	2005	추진 중
	MERCOSUR-인도	-	추진 중
	아르헨-멕시코	-	추진 중
검토 중	MERCOSUR-중국	-	추진 예정

2) FTA 추진 현황

□ 기 체결국 : MERCOSUR(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03년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양국에서 지역통합에 적극적인 좌파 정권이 등장하면서 FTA 확대 움직임 가시화
-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추진, EU 통합 가속화 및 미국 - 칠레간 FTA 체결 등 지역 블록화 가속화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국가들의 결속 강화 요인으로 작용

□ MERCOSUR내 통합도 더욱 활발히 진행

- 2003년 6월 중순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열린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CMC) 제24차 정기회의에서는 2006년까지 관세동맹을 완성키로 합의
- 현재 MERCOSUR는 정보통신 제품과 자본재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국별로 역외공동관세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등 불완전한 관세동맹 상태에 있음
- 나아가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공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 마련

3) 협상중 국가 : ANCOM 5개국, EU, 멕시코, 미국

가) MERCOSUR - ANCOM FTA

□ 남미권 내부 경제 통합 우선 추진

- 2003년 6월 아르헨티나는 남미권 내부의 경제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 하에 안데스 공동체(ANCOM) 5개국과 남미 공동시장간 통합을 통해 남미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나서고 있음

-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FTA를 체결하고, 오는 2005년부터는 실질적 통합을 이룩해 미국 주도의 FTAA 창설 협상에 양 블록이 단합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

□ 초대형 경제 블록 탄생 전망

- 안데스공동체와 MERCOSUR간 경제통합이 연말 중 타결될 경우, 인구 3억5천600만, 국내총생산(GDP) 1조3천억 달러의 초대형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됨

나. MERCOSUR- EU FTA

□ 아르헨티나, MERCOSUR와 EU간 FTA 협상 적극 추진

- 두 차례(1999년, 2003년6월)에 걸친 EU-라틴아메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FTA가 타진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미국과의 FTAA 추진 보다 EU와의 FTA 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끼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정부의 통상외교 정책 최우선권을 MERCOSUR에 두고 FTAA를 최하위에 두고 있음
- 한편, MERCOSUR와 FTA협상을 벌이고 있는 EU는 MERCOSUR 회원국간 역외관세 통일을 협상타결의 조건 중 하나로 내세우며, 명실 공히 하나의 경제블록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을 요구
- MERCOSUR에 무게를 두는 정권이 나란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들어섬에 따라 유럽연합과의 FTA에 가속이 붙을 전망
- 실제 아르헨티나의 마르틴 레드라도 외무부 차관은 “MERCOSUR의 FTA협상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유럽연합과의 협상”이라며 “2004년 2분기 중 완전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MERCOSUR와 EU의 FTA협상에는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개방, 투자개방 및 정부 구매부분 등이 걸림돌로 작용
- 농산물시장과 관련 EU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EU 15개 회원국의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협상 난항의 원인
- 서비스 부문은 MERCOSUR가 EU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어 개방을 꺼리고 있음

다. 아르헨티나-멕시코 FTA

☐ 아르헨티나-멕시코간 FTA 2003년 들어 가시화

- 양국은 최근 FTA 초안에 서명, 4단계 관세철폐 일정에 원칙 합의
- 즉, FTA 발효되면 일정 품목에 즉각적인 무관세 혜택 부여
- 협정발효 원년으로부터 5년 및 10년 후에는 각각 무관세혜택 확대
-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선 10년 이상 후 무관세혜택 부여

☐ 양국은 FTA체결로 교역 규모가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양국은 이번 FTA를 통해 통상교역규모를 3배로 증가시켜 멕시코의 수출입에서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을 1%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

라. MERCOSUR-미국간 FTA

☐ MERCOSUR와 미국간 FTA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MERCOSUR와 미국간의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농업 보조금 관련, 미국이 보조금제도에 따른 불공정 거래의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

3) 검토 중 국가 : 중국, 인도, 베네수엘라, 페루, 남아공

□ 중국 : 2003년 중 MERCOSUR-중국 간 FTA협상 시작 예정

- 중국과의 FTA 체결로 남미 국가들은 중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중국은 남미의 인프라 건설 시장 참가, 통신, 화학과 같은 분야의 시장개척 가능성이 열리게 됨

□ 이외 인도, 베네수엘라, 페루, 남아공 등과의 FTA 체결이 검토됨

나.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1) 농업 부문

□ FTA 체결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정책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 아르헨티나는 농목축국인데다 FTA 관련 정부차원의 별도 지원 및 농업 구조조정이 단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목축업계에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양돈업계의 사례를 보면, 1992년 당시 6천개사의 양돈업자와 350개의 도축장, 330만 마리의 돼지가 있었으나, FTA 체결 7년이 지난 2002년에는 양돈업체는 350개, 도축장은 170개, 돼지는 210만 마리로 규모가 크게 감소
- 양돈업계에서는 대규모 실직사태가 벌어짐. 양돈협회에 의하면 FTA 이후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도축부문에서 4000개, 가공부문에서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발표됨

2) 한계산업(제조업) 부문

□ 특별히 제조업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은 전개하지 않고 있음

- 단, 취약 분야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해서 적응기간을 두고 있음

□ 브라질산, 아르헨티나 시장 급속 장악

- 금년 들어 브라질산 섬유제품 범람으로 아르헨티나의 섬유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으로, 현지 섬유업계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음

다. FTA체결 후 정부의 농업 및 한계산업 피해보상 정책 사례

- 아르헨티나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바도 없었고 피해보상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한 대표적 부문은 섬유제품, 가전제품 등임

5. E U

가. FTA 체결 현황

[EU의 FTA 체결 추진현황]

구 분	체결 국가	시 기	비 고
기 체결	멕시코	2000.1. 발효	민감농산물 제외
	칠 레	2003.1. 발효	민감농산물 제외
	남아프리카공화국	2000.1. 발효	민감농산물 제외
협상 중	MERCOSUR	2001. 협상 개시	농산물을 둘러싸고 이견
	12개 지중해연안국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터키, 사이 프러스, 몰타)	2010년 발효 목 표	-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 2010년까지 자유 무역 지대 설립을 목표로 개별 국가와 FTA협상 추진, 이중 일부 국가와는 FTA 발효 - 관세동맹 : 터키('96), 사이프러스(2002) - FTA 완료 국가 : 튀니지('95), 이스라엘('95 잠정협정 기 발효, 2000 신규협정으로 대체), 모로코('96), 요르단('97) 이집트('99),알제리(2001)
	ACP(African, Caribbean, Pacific)국가	2008.1. 발효 예정	-
검토 중	대만, 싱가포르		EU보다는 대만과 싱가포르 적극적
	CIS국가(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협력 협정에 장차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조항 포함

나.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1) 농업 부문

- EU의 FTA는 순수한 의미의 FTA라기 보다는 기존 식민지국가에 대한 특혜무역 형식이거나 EU 확대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FTA로, 순수 의미의 FTA와는 다르며,
 - 통상적 의미의 FTA로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FTA(즉, 멕시코, 칠레 및 MERCOSUR)가 해당하는 바, 하기 구조조정 사례는 중남미와의 FTA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한편, 중남미 지역과의 FT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EU 산업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EU의 대해당국 수출입 비중이 미미함
 - 중남미와의 FTA는 경제적 이해분석을 통해 체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견제라는 정치적 이해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FTA 체결당시부터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 FTA 체결로 농업 구조조정을 겪은 사례는 없음

- FTA 체결 시 농업 분야는 항상 민감 분야로 부각
 - 결국 ACP 국가 등 기존 식민지 국가와의 특혜적 성격의 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감 농산물이 FTA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따라, FTA 체결로 유럽 농업이 구조조정을 겪은 경우는 찾기 어려움

- 이처럼 농업분야가 FTA로 구조조정을 겪지 않은 것은 중남미 국가와의 FTA에서 민감 농산물의 경우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
- 한편, FTA와 별도로 공동 농업정책 하에서 농가 보호 및 경쟁력 보호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음

(참고) EU-MERCOSUR FTA의 EU 농산물에 대한 영향분석

- EU 집행위 보고서

- EU의 대MERCOSUR 수입의 52%가 농산물로 이중 수입규모와 수입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육류제품, 곡물 및 설탕이 주된 민감 농산물로 분류됨
- 그러나, 민감 농산물이 EU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민감 농산물의 수입규모는 약 10억 유로내외로 EU의 대 MERCOSUR 총수입의 8.32% - 10.5%에 불과
- 또한, 이들 품목은 EU가 특혜무역국가(ACP나 지중해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EU 농업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2) 한계 제조업 부문

- 제조업은 중남미와의 FTA 체결에 따른 수혜산업으로 FTA 체결에 따른 한계 제조업 구조조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중남미와의 FTA 체결은 EU 제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참고) EU-MERCOSUR FTA의 EU 공산품에 대한 영향분석

- EU 집행위 보고서

○ 대 MERCOSUR 수출이 EU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임

- 자동차와 가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EU는 미국과 함께 MERCOSUR의 최대 수입국으로 FTA 체결은 오히려 EU 공산품의 대MERCOSUR 수출에 도움이 될 것

- 그러나, 대MERCOSUR 수출비중이 높지 않아 FTA 체결로 EU 산업이 교역을 통해 받는 혜택은 사실상 크지 않을 전망

6. 일 본

가. FTA체결 현황

- 일본이 FTA체결을 완료한 것은 싱가포르 1국뿐
- 싱가포르에 이어 멕시코, 한국, ASEAN과의 체결이 유력시
- 최근 일본정부의 통상정책은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노선에서 2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일본의 FTA 체결 현황]

구 분	체결 국가	시기	비 고
기 체결	싱가포르	2002.1	광의의 FTA, 즉 경제연계 협정 형태로 체결
협상 중	멕시코	-	정부간 교섭 중
검토 중	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ASEAN	-	- 한국 : 연내 정부간 교섭 개시 예상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 산관학연구회에서 검토 중 - ASEAN : 2012년경 체결 추진 예상

나.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1) 농업 부문

가) 기본 입장

-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시 일본의 식량안전보장, 농림수산업의 구조개혁 노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면서, 교섭 상대국의 관심품목에의 대응에 있어서는 각 품목의 상황을 감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분야별 예상 이해득실을 면밀히 분석)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의 교섭 기본 입장

- * 일본은 농림수산 분야 세계최대의 수입국으로서 수입에 비해 수출규모는 아주 적은 편
- 일본의 농림수산물 교역규모('02년) : 수입액 7조2,085억엔, 수출액 3,509억엔
- 관세 이외의 분야에서도 실시 가능한 정책 협력, 기술협력 등도 가능한 한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

나) 일본의 현황인식

-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림수산물 순수입국으로 이미 충분히 개방된 상태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일본의 농산물평균관세율은 12%로 대수출국인 미국(6%)에 비해 높으나 상당량의 수출을 행하고 있는 EU(20%), 아르헨티나(33%)보다는 낮은 수준
- 더욱이 2003년 관세개정으로 농수산물의 특혜관세 조치를 대폭 확대한 상태
- 수입 증가에 따라 일본의 식료자급율(칼로리 베이스)이 하락을 지속하여, 2001년 현재 40%를 기록, 주요 선진국 중 최저 수준

[주요 선진국의 공급열량 자급률 추이]

(단위 : %)

구분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1970	60	46	104	131
1980	53	66	131	151
1990	48	75	142	129
2000	40	74	132	125

자료원 : 농림수산성

다) 농업구조개혁 내용

□ 기업 영농 체계 도입 확대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추구

- 전통적 개념의 농가 영농방식에서 탈피, 기업영농체계 도입 확대를 위해 제도 및 환경 정비
 - 법인, 생산조직에 의한 기업영농 시스템 도입 확대
- 이로써 총 농가 수는 감소하는 대신, 생산성은 향상되는 효율적 영농체계 확립

[일본의 농업 구조조정에 따른 구조변화]

구 분	1999년	2010년
총 농가 수	• 324만	• 230~270만
컨셉	• 主業農家(*주2, 65세미만 농업전업자 포함)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주1)
주류	• 48만 - 단일경영 : 30만 - 복합경영 : 19만	• 가족농업경영 : 33~37만 - 단일경영 : 18만 - 복합경영 : 15~19만 • 법인·생산조직 : 3~4만
기타농가	• 276만 - 판매농가(*주3) : 2백만 - 자급적 농가(*주4) : 76만	• 190~230만 - 판매농가 : 140~150만 - 자급적 농가 : 50~80만
	• 토지소유 비농가(*주5) : 105만	• 토지소유비농가 : 140~170만

자료원 : 농림수산성

- 주) 1. 주로 종사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타 산업 종사자와 동등하고, 주된 종사자 1인당 생애소득이 타산업종사자와 손색이 없는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이 높은 영농을 행하는 경영
2. 65세미만으로 농업종사 60일 이상의 자가 있는 농가 중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높은 농가
3. 경지면적이 30a 이상 또는 농산물총판매금액이 50만엔 이상의 농가
4. 경지면적이 30a미만이고 농산물총판매금액이 50만엔 미만의 농가
5. 경지 및 경작 포기면적을 포함하여 5a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지면적이 10a미만이고 농산물판매금액이 15만엔 미만의 농가
6. 기타 용어해설

- 농업전업자 : 1년간 농업종사일수가 150일 이상인 자
- 단일 경영 : 당해부문의 농업현금수입이 농업 현금수입합계의 80%이상을 점하는 경영
- 복합 경영 : 단일경영이외의 경영

라) 일-멕시코 FTA 관련, 농업 부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구조조정 대책

□ 교섭 추진경위

- 2002년 7월 : 산·관·학 공동연구회보고서 종합
- 2002년 10월 : 일-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교섭 합의
- 2002년 11월 : 1차 정부간 교섭 실시
- 2003.1월- 8월 : 매월 정부간 교섭 계속(9차에 걸쳐 실시)

□ 일-멕시코 FTA 논의 쟁점

- 광공업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이상 농림수산물,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멕시코 국내관계자의 이해를 구하는데 불가피하다는 것이 멕시코의 입장
- 멕시코측은 일-멕시코 FTA시 농산물분야(특히 대일농산물수출의 절반을 점하는 돈육)에서의 성과를 강력 희망
- 한편 돈육은 일본 국내농업에도 중요 분야의 하나로, 양돈 농가 수는 10년간 1/3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구조개혁 노력으로 戸당 양돈두수는 2.6배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가격은 멕시코산에 비해 1.6배로 여전히 고가
- 주요 돈육생산지 : 가고시마현(1,293천두, 13.5%), 미야자키현(854천두, 8.9%), 군마현(631천두, 6.6%)
- 이에 반해, 일본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① 관세철폐까지의 경과기간(예 : 5년, 7년, 10년) 및 예외품목 지정, ② 특별 세이프가드(수입이 급증할

경우 일반세율로 환원하는 시스템)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

- '03년 5.12-16일 개최된 제6차 정부간 교섭 시, 일본 측은 농산물, 비 농산물(임산물, 피혁제품 등) 구분 없이 예외품목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
- 7-9차 정부간교섭(6-8월)시에도 상기 내용 주장

[일본의 대멕시코 농림수산물교역현황(2001년)]

(단위 : 억엔, %)

수입액	수출입액 중 농림수산물 비중	수입액 중 농림 수산물 비중	농림수산물수입상위5품목의 수입금액, 관세율				
			1위	2위	3위	4위	5위
			돈육	아보카도 (新鮮)	호박 (新鮮)	멜론 (新鮮)	아스파 라가스 (新鮮)
526	7.3	21.9	248	30	29	24	23
			차액 관세	3.0	3.0	6.0	3.0

자료원 : 농림수산성

☐ 구조조정 대책

-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 영농체계 도입 확대 추진

2) 한계산업(제조업) 부문

☐ FTA 차원에서 보다는 장기 불황 탈출을 위해 민간부문 활성화 추진

- FTA 체결을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농업이외의 산업(제조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의 명시적 움직임은 없음

- 다만 일본은 거품경제붕괴이후 10여년에 걸쳐 제로성장을 맴도는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신 산업육성, 엔젤 제도 확충 등을 통한 벤처창업육성 지원, 경제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등의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음

일본의 신 성장 산업분야

- 대상 부문 : 바이오 등 생명공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 재료 등
- 육성 대책
 - 연구개발자원의 중점배분 및 효율화 추진
 - 정부의 종합과학 기술회의에서 산관학이 공동으로 분야선정 지원
 - “실용화에 직결된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포커스 21)”하에 추진
 - 상기 대상부문에 '03년중 367억엔 지원
- 지원 내역
 - 생명공학 : 8개 프로젝트 88억엔
 - 환경분야 : 8개 프로젝트 44억엔
 - 정보통신분야 : 13개 프로젝트 173억엔
 - 나노 기술 및 재료분야 : 13개 프로젝트 61억엔

엔젤 제도

- 개 요
 - 벤처기업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세제 우대조치
 - 금년 4월1일부터 주식 취득단계 우대조치 마련 및 적용조건에 대한 완화조치
- 세부 내용 요지
 - 투자 시점 : 투자액을 여타 주식 양도이익으로부터 세액공제
 - 매각 시점 : 이익이 발생할 경우 50%에 대해 과세,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익년이후 3년간 이월 세액공제

다. 농업 및 한계 제조업 피해보상 정책 사례

□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거론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 일본이 FTA 체결을 완료한 국가는 싱가포르 1개국에 불과한 바, 아직까지는 FTA 미체결·미교섭 국면으로 피해 보상 문제가 거론될 시점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검토 되고 있지 않은 실정
- 단, 현재 추진 중인 멕시코와의 FTA 체결 관련, 국내 농업부문의 강력한 반발로 일-멕시코 FTA는 연기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

7. 체 코

가. FTA 체결 현황

[FTA 체결 현황]

구 분	체결 국가	시기	비 고
기 체결	루마니아	1994	
	발틱 3국	1996	
	이스라엘	1996	
	터키	1997	
	크로아티아	2001	

나.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1) 농업 부문

□ 체코 정부의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 출발점은 2004년 EU 신규 가입국들을 위해 EU에서 계획한 SAPARD(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기초

○ 체코는 총 520백만 유로중 22백만 유로를 지원받게 됨

□ 체코 농업부는 체코 농가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OZP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수립

○ 농가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해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

○ 농가 교육(Education and re-qualification) 강화

□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 유도

○ 시장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의 생산 및 마케팅 강화

□ 품질 관리 능력 향상

- 일반 농가는 정보 부족 및 충분치 않은 예산 지원으로 EU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바, 품질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실시 중
-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은 프로젝트당 EUR 130,000

□ 농가 생활 여건 및 환경 개선

- 학교 및 공중 시설 건물 현대화, 하수 시설 정비 등

2) 한계산업(제조업) 부문

1)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

- 현재 체크와 EU 국가 교역의 95%가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어 EU 가입 후에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
- 체크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EU 가입 후 및 FTA 체결 후 제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수립 추진
 - 중소기업 지원강화(ARP) : 자본재 투자액의 70%까지 지원(금액제한 : US\$ 70만)
 -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대체산업 육성
 -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전담조직인 Czech Invest 기능 강화)
 - 상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2004-2006년간은 산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에 Priority를 두고 있음

8. 칠 레

가. FTA 체결 현황

□ 2003년 10월 현재 총 28개국과 FTA 체결

- 한편, MERCOSUR 4개국, 안데스 국가 5개국과도 경제보완협정(ECA) 체결

[칠레의 FTA 체결 현황 및 예정 사항]

구 분	체결 국가	시기	비 고
기 체결	캐나다	1997.7	
	멕시코	1998.8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1999.10	
	EU	2002.5	
	한국	2002.10	
	미국	2003.6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3.6	
협상 중	볼리비아	-	- 1993.7 이후 경제보완협정(ECA)을 통해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의 관세인하 단행 - FTA 추진 합의('98.6)
검토 중	- 뉴질랜드/싱가포르 - 일본 / 중국 / 인도 등		

나.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및 피해보상정책

1) 농업 부문

가) 구조조정 정책

□ 농업분야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및 영농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칠레는 세계적인 농업강국으로 농산물 보조금지급을 반대하는 케언즈(Cairns)그룹의 회원으로 세계무역협상에서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주도적으로 주창
- 칠레 농산물 분야는 무역자유화의 최대 수혜 품목 군으로, 칠레가 경제보완협정(ECA)을 본격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농산물 수출액이 약 150% 증가하였고 농산물 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약 120% 증가함
- 칠레 농산물 분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Dole, Kellog, Nestle 등 40여개 다국적 기업이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활동 중

나) 피해보상 정책

□ 피해 예상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시기 유예 또는 협상에서 제외

- 칠레는 FTA협상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품목의 관세인하시기를 유예하거나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지원책은 채택하여 왔으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행하지는 않음

□ 장·단기 농민 지원책은 고려 중이나, 직접적 보상금 지급은 미 실시

- 예를 들어, 금년 6월 체결되어 내년 1월 발효예정인 미국과의 FTA로 밀 재배 농가 등 일부 농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융자 지원, 기술지원 등으로 소작농에 대한 장, 단기 농민지원책을 고려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칠레정부의 입장임

2) 한계산업(제조업) 부문

1) 구조조정 정책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적 지원 정책만 실시

- 칠레는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5%내외이며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음
- FTA 체결을 통해 제조업분야 기술이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수출진흥공사(Prochile), 산업진흥청(CORFO)등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개발, 금융지원, 직업교육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FTA로 인한 특정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이라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적 지원책에 불과

2) 피해보상 정책

☐ 피해 예상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시기 유예 또는 협상에서 제외

- 한계 제조업에 대한 특별한 보상정책은 없으며, 보호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관세 인하시기를 유예하거나, 관세인하품목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제조업 보호를 위하여 한국과의 FTA체결시 냉장고, 세탁기를 협상에서 제외하였고, 자동차 타이어를 12년간 관세 인하품목으로 협상

9. 폴 란 드

가. FTA 체결 현황

[FTA 체결 현황]

구 분	체결 국가	시기	비 고(발효 시기)
기 체결	EU(EU 15개국)	1991.12	- 1992.3(일부), 1994.2(일부)
	CEFTA	-	
	- 체코	1992.12	1993.3
	- 헝가리	1992.12	1993.3
	- 슬로바키아	1992.12	1993.3
	- 슬로베니아	1995.11	1996.1
	- 루마니아	1997.4	1997.7
	- 불가리아	1998.7	1999.1
	EFTA		
	- 아일랜드	1992.12	1993.11
	- 리히텐슈타인	1992.12	1993.11
	- 노르웨이	1992.12	1993.11
	- 스위스	1992.12	1993.11
	리투아니아	1996.6	1997.1
	라트비아	1997.4	1996.6
	이스라엘	1997.7	1999.1
	에스토니아	1998.11	1999.1
	파로에(Faroe Islands)	1998.11	1999.6
	터키	1999.10	2000.5
	크로아티아	2001.11	2002.4

나.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1) 농업 부문

- ☐ EU 집행부, SAPARD(Support for Pre-Accession Measures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프로그램 운영 중

- EU와의 FTA 체결 이후, EU 집행부는 1997.7월 European Union Policy 2000-2006에 따라 SAPARD 프로그램 수립
- 동 SAPARD 프로그램에 따라 EU는 폴란드 등 중동구 국가의 EU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00년-2006년간 매년 520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농업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 중
- 이와 관련, 폴란드는 매년 168백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아 농업 기반 시설 개선, 농산물 품질 제고, 농촌 환경오염 방지 능력 개선, 농가 수입 증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2) 한계 산업(제조업) 부문

1) 석탄산업 부문

□ “폴란드의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 장기 계획” 수립

- 폴란드는 EU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폴란드의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 장기계획”을 수립, 한계 산업인 석탄산업 부문의 구조조정방안 수립
- 이와 관련, 2003-2006년간 중기 계획으로
 - 2003.8. 현재 석탄 광산 산업 부문의 채무 65억불 중 45억불 탕감
 - 2004년까지 7개 광산 폐쇄
 - 연간 채탄 물량 감축(연간 1억 2백만 톤 → 7천 2백만 톤)
 - 광산 부문 고용 인원 감축(2006년까지 십만 명에서 2만 8천 명으로)
 - 국영 광산 민영화(KWK Budryk, KHW)를 적극 추진 중

2) 철강산업 부문

□ “폴란드 철강 산업 구조조정 계획(Programme for Restructuring the Steel Sector in Poland)” 수립

- 폴란드는 EU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폴란드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1998.6. 수립하여 한계산업인 철강부문의 구조조정 추진
- 이에 따라, 폴란드는 2006년까지 철강산업 고용인원 감축(23천명 → 16천명), 생산량 감축(2006년까지 996천 톤으로 감축),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적극 추진 중

10. 캐 나 다

가. FTA 체결 현황

[FTA 체결 현황]

구 분	FTA(체결 국가)	시기	비 고
기 체결	NAFTA(미국, 멕시코)	- '92.12 체결, '94.1 발효	
	CCFTA(칠레)	- '96 체결, '97.1 발효	
	CIFTA(이스라엘)	- '96.7 체결, '97.1 발효	
	CCRFTA(코스타리카)	- '01.4 체결, '02.11 발효	
협상 중	FTAA(미주 34개국)	2005년 출범 목표	
	Canada-Central America Four FTA(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01.11 협상 개시	- 예상 체결 시기 불명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98.10 협상 개시	- 예상 체결 시기 불명
	싱가포르	- '01.10 협상 개시	- 예상 체결 시기 불명
검토 중	안데안 5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 '02.8 검토 시작	
	CARICOM(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Jamaic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01.9 검토 시작	
	도미니카 공화국	'02.11 검토 시작	
	EU	'02.12 검토 시작	

나.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1) 농업 부문

□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농업장려 정책 시행

- FTA 체결 이후의 구조조정 단행이나 피해 수습의 차원보다는 생산성,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 지속

가) Agricultural Policy Framework

- 전반적인 농업 개발 및 육성 정책으로 2002년 6월 연방/ 주정부가 각 60:40의 지원으로 시행
- 시행 후 5년간 C\$ 82억 규모 지원
- 전반적인 농산품의 생산성, 마진, 재배 및 마케팅 기술, 품질 향상과 친소비자·친환경적 농업 개발이 목적
- 상기 목적 달성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추구

나) Bio산업 지원을 통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 장려

- 가격 경쟁력이 결정적인 세계 농산품 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은 노력으로 높은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품을 Biotechnology 산업에 포함시켜 차기 유망산업으로 육성
- R&D 비용 및 설비투자 세제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 기술 개발 및 혁신이 육성 정책의 골자

다) 구조조정 결과

- 유전자조작식품 산업의 확장
-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유전자조작 활용 증대

- 고부가가치 품종으로의 전환
- 캐나다 농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밀을 oilseeds가 대체하는 움직임
 - oilseeds는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가져 수요 범위가 넓고 마진이 밀에 비해 높음
 - oilseeds는 현재 캐나다 전체 농경지의 16%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성장

2) 한계산업(제조업) 부문

1) 구조조정 정책

☐ 기본적으로 경쟁력 약화에 따른 정부 개입이 적음

-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캐나다는 시장경제에 관한 한 "no policy is a policy"주의를 고집
 - 산업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유도
 - 경쟁력 없는 산업의 도태를 꺼리지 않음
 - 그 결과, 캐나다의 산업구조는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경쟁력이 있는 1차 산업을 제외하면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고기술 2차, 3차 및 4차 산업이 발달한 모래 시계형 구조임

☐ 차세대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혁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보통신, 바이오산업 등의 첨단·차세대 산업은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
 - R&D 비용 지원, 각종 tax credit, 우수인력 조달을 위한 대학 지원 등

□ 단, 섬유·의류산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마련 ; CATIP (Canadian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Program)

- 피해가 예상되는 섬유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 골자
- 저임금 FTA체결국 및 개도국과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
- 국내 섬유 업체의 신기술 개발 및 마케팅 능력 배양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저임금 국가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함
-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의 지원 아래 Canada Economic Development에서 수행하며 총 지원 예산은 C\$ 33백만
- 기술 및 마케팅 혁신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신청하며 정부는 각 프로젝트를 개별 심사해 지원 결정
-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는 아래의 목적을 충족해야 함
 - 신 섬유제품 개발로 마진 향상 및 가격 경쟁 회피
 - 기존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 생산기술의 개발
 - 시장 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발굴 및 진출 방안 모색
 - 효율적인 마케팅/홍보 방안으로 e-business 능력 배양
 - 경쟁으로 인한 피해 축소 및 안정성 확립을 위한 상품 다양화
- 고정자산이 아닌 영업/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비영리 연구기관의 경우 90%)를 현금으로 지원
- 각 프로젝트 당 지원 상한액은 C\$십만으로, 지원 대상 비용은 임금 및 근로자 혜택 제공 비용, 원자재 및 소모품 비용, 컨설팅 및 기타 전문 기술 서비스 자문 비용 등 포함

2) 구조조정 결과

□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 양측 모두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
 - 기술 개발, 생산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저임금 체결국과의 차별화 시도, 체결국 산업과의 직접 경쟁을 피함
- 예) '90년대 초반부터 정책적으로 육성된 정보통신 인프라 및 하드웨어 산업은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반면, 생산 비용은 저렴한 개도국 FTA 체결국과의 기술력 격차로 직접 경쟁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국으로의 시장 확대

다. 피해 보상 정책 및 사례

□ 사회복지제도가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 정책을 대신

-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FTA 체결과 관련한 특별 정책 보다는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의 사회안전망이 피해보상 역할
- 실업보험 제공 및 의료보험의 정부 부담이 농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친 실업 및 전업 부담을 적게 함
- 전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교육비는 FTA 및 농업과 관계없이 지원
- 농업부문에 대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소득 보증 및 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NISA)와 Crop Insurance, 주정부들의 Income Stabilization Programmes 지원액은 2001/2002년 기준 C\$25억 규모

11. 형 가 리

1. FTA 체결 현황

구 분	체결 국가	발효시기	관련 법규
기 체결	EU(EU 15개국)	'95.1	Act I of 1994
	CEFTA	'94.7	Act XIII of 1995
	-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EFTA	'93.7.1	Act LXXXIII of 1993
	-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리투아니아	'00.03	Act LXXXI of 2000
	라트비아	'00.1.1	Act XXVIII of 2000
	이스라엘	'98.2.1	Act VIII of 1998
	에스토니아	'01.03	Act XXXII of 2002
	유고유로비아	'02.7.1	Gov. Decree 2063/2002 (III.21.) of 2002
	터키	'98.4	Act XX of 1998
	불가리아	'96.5	Int'l Agreement 1998/13
	루마니아	'7.7	Int'l Agreement 1997/6
	크로아티아	'03	Gov Decree 2033/2003 (II.25) of 2003

나.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 EU 가입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EU 국가보다 농업 기계화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토양이 비옥하여 EU 가입으로 농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EU 집행부, SAPARD(Support for Pre-Accession Measures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프로그램 운영

- 2004. 5. 1일, EU에 가입할 예정임에 따라 EU 집행부는 헝가리 등 신규 가입 예정 국가들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SAPARD 프로그램 운영
- 동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매년 5억 2천만 유로 예산으로 중동구 국가에 지원되고 있으며, 헝가리는 매년 66백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음
- 현재 SAPARD 프로그램에 의해 농업부문 종사자에 기술 금융을 지원하는 등 농업 부문 산업화 추진 중

□ 주요 추진 내용

- 대체 작물 개발을 위한 산학 연구 개발 지원
- 농가에 장기 은행 대출
- 기계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

2) 한계산업(제조업) 부문

□ EU가입은 헝가리 제조업에 기회로 작용

- EU 가입 등 FTA 체결이 헝가리 제조업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EU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헝가리의 활용도를 높일 전망이다, 오히려 헝가리 노동 집약적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가전제품 조립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 등
- 또한, EU 단일화로 제품 규격의 동일화 및 EU 확대에 따른 헝가리 투자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EU 진출 희망업체의 우회접근로로서 헝가리 진출 증가가 기대됨